

김돌산 심방 본풀이 채록

세경본풀이

옛날 옛적 김진국 대감님광 조진국 부인님이 사옵데다.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것이 애긴 엇영¹⁾ 호호탐복 허여가난, 동계남 은중절(東觀音殿在寺) 서계남 금법당(西觀音金法堂) 낭계 상상(上山) 메양²⁾ 올라 한동절 원수륙(願水陸) 올리난, 김진국에 대감님광 조진국에 부인님이 생불(生佛)을 처급(處給)허난, 인간에 즈청비가 솟아나난,

흔 설 두 설 여남은 설 뒤편가난 늦인덕이 정하님은 손과 발이 고와지난,

“너는 어찌해서 손과 발이 곱느냐?”

“연세답³⁾ 헤단 메날 아적⁴⁾ 상저님 빨레⁵⁾ 허단 입저부난⁶⁾ 손과 발이 곱네다.”

“내일은 계건 나도 돌양 걸라.⁷⁾”

주천강(酒泉江) 연화못(蓮花池)디 연세답을 가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은 거무선 생신디 글공부 활공부, 내려오단 곱닥헌⁸⁾ 애기씨가 잇이난 어떻게 저 애기씨광 말이나 흥번⁹⁾ 골아보리¹⁰⁾ 영 허연. 애기씨 물이나 흥쓸¹¹⁾ 물 거려줄 수 이시넨? 허난,

“물 거려줄 모음은¹²⁾ 잇어도 물 거려줄 그릇이 엇우다.”

“나 등더레 보민 폐주박이 잇우다. 폐주박을 클렁¹³⁾ 물이나 흥꿈 거려 줘서.”

폐주막 클런 물을 거는디,¹⁴⁾ 삼세번을 두드리고 삼세번을 물을 헤치곡 거려근, 수양청버드남 쉼¹⁵⁾ 따 난에 안내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푸푸 불명 먹단

“어떻게 애기씨 얼굴은 이쁘우다만은 물에 티가 잇이민 물에 티를 건져동 물을 쥐사 원칙인디 물에 티를 따 낳 줘니꺼?”

허난, 그런 말 허지 맙서. 우리 민물엔 진쉬가¹⁶⁾ 잇기 때문에 세 번 두드리고 문지가¹⁷⁾ 잇기 때문에 세 번 헤치고, 물을 거령 청버드남 쉼 따는 건, 물 먹구정 험 때¹⁸⁾

1) 엇영: 없어서.

2) 메양: 늘.

3) 연세답: 빨래.

4) 메날 아적: 매일 아침.

5) 빨레: 빨래.

6) 입저부난: 입히니.

7) 돌양 걸라: 데려 가라.

8) 곱닥헌: 고운. 어여쁜.

9) 흥번: 한번.

10) 골아보리: 말해보리.

11) 흥쓸: 조금.

12) 모음은: 마음은.

13) 클렁: 끌어서. 풀어서.

14) 거는디: 뜨는데.

15) 수양청버드남 쉼: 수양청버드나무 잎.

16) 진쉬가: 진땀물.

17) 문지가: 먼지가.

18) 먹구정 험 때: 먹고 싶을 때.

목을 놓양 먹어불민 물에 체가 나민 물 체엔 약도 엇인 법이난, 삼세번을 헤치고 두 들고 수양 버드남 쉼 따 놔수덴 허난,

“아이고 그걸 몰랐구나마썸.”

“웁서. 우리 통성명이나 허게.”

“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인디 지하에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가는 중이우다.”

“난 인간에 즈청비가 뒹여집니다.”

영허난, 아이고, 우리집이 가민 우리 오래비 잇인게. 친구 벗이 엇영 글공부를 못 감덴 허난,

“계건들랑 훈디¹⁹⁾ 글렌.”

허난,

“결랑 기영 험서.”

집이 간 연세답 허단. 담더레²⁰⁾ 착착 걸쳐두고 어머님신디 아바님신디 들어 간, 아 바님아, 어머님아 웁서. 글공부 활공부 갔다 오쿠덴 허난,

“아이고, 서룬 애기야, 가지 말라. 여자가 남도 낫저. 무신 글공부니?”

허난,

“아이고, 아바지나 어머니나, 나 말 곧건²¹⁾ 들웁서. 우리 어느 형제간이 잇우과? 쁘 당²²⁾이 잇우과? 아바님이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민 축지방(祝紙榜)은 누계가²³⁾ 썸광.²⁴⁾ 축은 누계가 익읍네까?”²⁵⁾

그 말도 들언보난 맞앗구나.

“계건들랑 공부. 멍심헨 갖다오라.”

여자방에 돌려들언²⁶⁾ 여자입성(女服) 벗어간다. 남자방에 돌려들언 남즈입성(男服) 입어간다. 겐 입성 해연. 총각머리 등에 지연. 저 베끼디에²⁷⁾ 간 통성명을 내엇구나.

“나는 즈청도령이 뵈네다.”

“나는 문암성 문도령이 뵈네다.”

거무선생안티 글공부 활공부 갖구나. 느네 훈날 훈시에²⁸⁾ 왓이난 훈방을²⁹⁾ 쓰렌 허 난,

“결랑 기영 험서.”

훈방을 쓰젠 허난 즈청비가 생각을 허는디, 이날 저녁, 훈방에 기냥³⁰⁾ 자민 아나 뵈거난, 은대양에³¹⁾ 세숫물을 떠 놓안, 가운디 놓안, 이것 떨어치우는 자는, 은수제³²⁾

19) 훈디: 함께. 같이.

20) 담더레: 돌담에.

21) 곧건: 말하건.

22) 쁘당: 친척.

23) 누계가: 누가.

24) 썸광: 씹니까.

25) 익읍네까: 읽습니까.

26) 돌려들언: 달려들어서.

27) 베끼디에: 밖에.

28) 훈날 훈시에: 한날 한시에.

29) 훈방을: 한방을.

30) 훈방에 기냥: 한방에 그냥.

하나 걸치곡 은좁은³³⁾ 걸천 요것 떨어치는 자는 글도 낙방 활도 낙방헌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글읍디덴³⁴⁾ 허난, 문암성 문도령은 그것 떨어치지 말젠 여시좁을³⁵⁾ 자고, 조청빈 천장만장 좁을 잣구나. 이젠 어평허민 좋으리요.

뒷날 아침은 공부허젠 허민, 조청비는 천장만장 자난 선생님 하늘천(天) 허민 따지 제(地字) 붙여간다. 따지(地) 허민 집우제(宇字) 붙여간다. 천하문장(天下文章)이 뒤엿구나. 지하문장(地下文章)이 뒤엿구나. 문암성 문도령은 그 은수제 늦수제³⁶⁾ 떨어치지 말젠³⁷⁾ 여시좁을³⁸⁾ 자난 공부는 허젠 허민 꼬박꼬박 졸아가민 글도 조청비신디 떨어지엇구나. 활도 떨어지엇구나.

“야, 우리 경 말앙, 이거 아무리 요리 봐도 여자 닳고 저리 봐도 여자 닳은디 흥번 돌음돌락이나³⁹⁾ 헤보게. 우리 씨름혈락이나 헤보게.”

돌음돌락 헤도, 바당에⁴⁰⁾ 가민 쿠살,⁴¹⁾ 솜살 헤단, 그레 7망 툐환⁴²⁾ 실로 묶언 돌을 땀⁴³⁾ 그거 돌아 메영⁴⁴⁾ 돌랑돌랑 헤가민 그거 닳고 영 허난, 이거 소나이가 맞긴 맞은 거 닳아 뵈고.

“우리 이제랑 씨름 헤보게.”

씨름 허젠 허난 조청빈 어거지고,⁴⁵⁾ 문도령은 신사적으로 허젠 허난, 와당탁허게 내다부치난 씨름도 조청비 신디 지어간다. 씨름혈락도 지어간다. 돌음돌락도 지어간다.

“계걸랑 이제랑 오좁 굴길락이나⁴⁶⁾ 헤보게.”

오좁은 굴기는 디, 문암성 문도령은 원형지고장이난 아흡방축⁴⁷⁾ 굴기난, 조청빈 대왕통⁴⁸⁾ 들연 열두방축⁴⁹⁾ 굴리난, 아이고, 오좁 굴길락도 지어간다.

흐를날은⁵⁰⁾ 하늘옥황에서 서수왕에 장계⁵¹⁾ 가렌 편지전갈 오난, 옥황에서 오렌 편지전갈 왓이난 난 가켄 허난 조청빈,

31) 은대양에: 은 대야에.

32) 은수제: 은 숟가락.

33) 은좁은: 은 젓가락.

34) 글읍디덴: 말하십디다.

35) 여시좁을: 여우잠을.

36) 늦수제: 늦숟가락.

37) 떨어치지 말젠: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38) 여시좁을: 여우잠을.

39) 돌음돌락이나: 달리기나.

40) 바당에: 바다에.

41) 쿠살: 해삼.

42) 7망 툐환: 고망 툐어서.

43) 돌을 땀: 달릴 때는.

44) 돌아 메영: 달아 매어서.

45) 어거지고: 억지이고.

46) 굴길락이나: 갈기기 내기.

47) 아흡방축: 아흡 자.

48) 대왕통: 대나무로 만든 통.

49) 열두방축: 열두 자.

50) 흐를날은: 하룻날은.

51) 장계: 장가.

“올 때도 훈디 왓이난 갈 때도 훈디 가기가 어떻 허니?”

걸랑 기영 허렌 허연. 쯤청비도 거무선생 하직을 한다. 문도령도 거무선생 하직한다. 하직허연 느려오단⁵²⁾ 주천강 연훼못디 당허난 아이고, 쯤청비가 허는 말이,

“우리 연삼년(三年)을 살아시난, 몸에 테가⁵³⁾ 잇이민 아니 뉘난, 몸목욕이나 ㅋ쿨히 행⁵⁴⁾ 가게.”

걸랑 기영 허렌.

“문암성 문도령은 알통에서⁵⁵⁾ 험서. 날랑 울통에서⁵⁶⁾ 허쿠다.”

울통에서 왈탕발탕 목욕을 허는디 쯤청비는 손과 발만 씻어간다. 문암성 문도령은 우알로 옷을 맨짜⁵⁷⁾ 벗영 목욕을 허난, 나문섭에⁵⁸⁾ ‘멍청헌 문암성 문도령님아, 연삼년을 살아도 남전중⁵⁹⁾ 여전중 구별을 못허는 문암성 문도령님아, 난 쯤청비가 뉘여진 덴.’ 헤연. 천장만장 돌아가난,

문암성 문도령은 바지 가달⁶⁰⁾ 허나에 가달 두 개 드물런⁶¹⁾ 와들랑탕 와들랑탕 헤도 잘 입언. 저 올레로 들어사는 거 옷자락을 잡아 덩기난,

아이고, 이 옷 노민⁶²⁾ 어머니 아버지 신디 강 인사 문안 드려동 오켄 허난, 계건들랑 어서 인사문안 드려동 오렌 허연.

어머니 아버지 신디 강 인사문안 드리는 디,

“저 먼 정⁶³⁾ 친구 벗이 왓우다.”

열다섯 십오세 안내 걸랑 들여놓고, 열다섯 십오세 넘건 들여놓지 말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서.”

남저 방에 돌려들언 남저 입성 벗어 두고, 여자 방에 돌려들언 여자 입성 입언.

겐, 입성 헤앗어⁶⁴⁾ 친구 벗은 인사문안 올려두고, 이젠, 방 안내 잇이렌 헤여된, 쯤청빈 상다락(上樓)에 노념허저.⁶⁵⁾ 올라 간 멩지비단⁶⁶⁾ 짜노렌 허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이편이나 왓신가, 저편이나 왓신가 허여도 쯤청비가 아니오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은 하늘옥황더레 도올라 불엇구나.

도올라 부난, 쯤청빈 이날 봐도 아니 오고, 저날 봐도 아니 오고, 기다리고 바려도⁶⁷⁾ 아니 오난,

52) 느려오단: 내려오다가.

53) 테가: 때가.

54) ㅋ쿨히 행: 깨끗이 해서.

55) 알통에서: 아래통에서.

56) 울통에서: 윗통에서.

57) 맨짜: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58) 나문섭에: 나뭇잎에.

59) 남전중: 남자인중.

60) 가달: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

61) 드물런: 넣어서.

62) 노민: 놓으민.

63) 저 먼 정: 저 올레.

64) 헤앗어: 해서.

65) 노념허저: 놀려고 하저.

66) 멩지비단: 명지비단.

67) 바려도: 바래도.

정이엇인 정수넴이 테독골은 배,⁶⁸⁾ 부수 먹어 낡 동더레도 돌아 뉘 혼죵⁶⁹⁾ 자고, 서더레도 돌아 뉘 혼죵 자가난, 아이고 브레기 싹뻗구나.⁷⁰⁾ 즈청빈 허는 말이,

“야, 정이엇인 정수넴아. 아무가이 장정들은 강 관관남을 허여 오논디, 너는 관관남도 아니 허여오고 무시거를⁷¹⁾ 허느냐?”

흔저 강 관관남 메여 오렌 헤가난,

“계걸랑 상전님아, 애기씨 상전님아. 쉼⁷²⁾ 아홉도 내어 놓서. 물⁷³⁾ 아홉도 내어 놓서.”

쉼 아홉도 내어 논다. 물 아홉도 내어 논다. 어리령 떠리령 어리령 떠리령~ 어리령~ 저 산천더레 올라간다.

다 올라가난, 동더레 벌은 가지에 쉼 아홉도 메어간다. 서더레 벌은 가에 물 아홉도 메어간다. 낡⁷⁴⁾ 그늘에 앓안 헛들랭이⁷⁵⁾ 갈라정⁷⁶⁾ 즈⁷⁷⁾ 자노렌 허난, 쉼 아홉도 물 기리완⁷⁸⁾ 다 죽엇구나.

물 기리완 다 죽으난, 정이엇인 정수넴인 쉼 아홉도 물 아홉도 가죽머리 자쳐 놓안,⁷⁹⁾ 꿩⁸⁰⁾ 익어신가 혼점,⁸¹⁾ 설어신가 혼점. 멩게남⁸²⁾ 견어 낡, 단단숯불 피완 먹단 보난, 쉼 아홉도 물 아홉도 문⁸³⁾ 먹어지엇구나.

가죽 머리 자쳐 놓안, 지언 앓영⁸⁴⁾ 오단 보난, 올리수(沼)에 곱닥헌⁸⁵⁾ 올리⁸⁶⁾ 한쌍이 잇엇구나. 우리 상전님은 곱닥헌 것에만 좋아허난, 저 올리 맞형 강 상전님 눈에 드리젠,⁸⁷⁾ 은기 도끼 황기 도끼 내여낡 탁허게 맞히난, 황기도끼 물 알려레 들어가 불고 올린 포르릉 포르릉 하늘옥황더레 도올라 불엇구나.

도올라 부난, 아이고, 이젠 어평허민 조코. 올린 못 맞히고 도끼 물 알려레 들어가 불고. 이젠 구쟁이 점벙이 벗언 놔두고 동더레도 풍당풍당 숨벼간다. 서더레도 풍당풍당 숨벼간다. 아이고, 숨비단 보난, 피체골은 도둑놈은 가죽 머리 자쳐 논 거, 구쟁이 점벙이꼬지 앓안 도망갓구나. 나완 보난, 구쟁이⁸⁸⁾ 점벙이⁸⁹⁾ 엇엇구나. 가죽 머리 자

68) 테독골은: 임신한 배처럼.

69) 혼죵: 한잠.

70) 브레기 싹뻗구나: 바라보기 싫엇구나.

71) 무시거를: 무엇을.

72) 쉼: 소.

73) 물: 말.

74) 낡: 나무.

75) 헛들랭이: 뒤로 나자빠지는 꼴.

76) 갈라정: 누워서.

77) 즈: 잠.

78) 기리완: 그리워서. 목말라서.

79) 자쳐 놓안: 젓혀 놓아서.

80) 꿩: 고기는.

81) 혼점: 한점.

82) 멩게남: 청미래덩굴.

83) 문: 모두.

84) 지언 앓영: 저서 갖고

85) 곱닥헌: 예쁜. 고운.

86) 올리: 오리.

87) 드리젠: 들려고.

쳐는 거 엇엇구나. 아이고, 하늘이나 뵈신가. 땅이나 뵈신가. 계남입은⁹⁰⁾ 번들번들 허 엇구나.

그거 계남입 번들번들 헨 거 딴 강알만 감추완. 새 비연⁹¹⁾ 주지 맨들안. 주지, 느람지⁹²⁾ 맨들안 들러 씨언 장항⁹³⁾ 주위 옆이 완 들썩들썩 춤을 춰시난, 정이엇인 정술덱이 아침 반찬, 장 거리레 강, 국 끓리젠 장 거리렌 간 보난, 난데엇인 장항 주지가 돌썩돌썩 춤을 춰구나.

“너가 구신이나? 생인(生人)이나?”

아이고, 돌썩돌썩 헤여가난, 쯤청비신디 완,

“아이고, 애기씨 상전님아, 난데엇인 장항 주지가 돌썩돌썩 춤을 춰수다.”

쯤청빈 옥출경(玉樞經)을 삼칠이 이십일 스물흔 번을 익엇구나.⁹⁴⁾

너가 구신이나? 생인이나? 구신이건 옥황더레 도올르고 생인이건 혼저 나오렌 허난, 주지 벗언 나온 건 보난 정이엇인 정수넴이로구나.

“너, 썬 아홉 물 아홉 내여 쥬 관관남 헤영 오렌 허난 어찌해서 그 모양으로 왔느냐?”

상전님아, 아이고, 상전님아, 곤도 말고⁹⁵⁾ 이르도 맙서. 썬 아홉 물 아홉 문 애먹영⁹⁶⁾ 죽어부난, 썬 아홉 물 아홉 가죽 머리 자쳐 난. 벳견,⁹⁷⁾ 지언 오단 보난, 올리수에 궁예청(宮女)청 신예(侍女)청, 문암성 문도령, 꽃감관 꽃생인 꽃놀이 허는 거 보단 늦언 이 지경이 뒤엇우덴 허난, 피체골은⁹⁸⁾ 도둑놈이 문딱⁹⁹⁾ 앓어¹⁰⁰⁾ 가불엇젠. 이말저말 썬 아홉 물 아홉 죽은 건 생각 못허고 옥황에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궁예청 신예청 꽃놀이 허염서렌 허난 그거에 귀가 오짝 헤엇구나.

내일도 갈티엔 허난,

“내일도 가쿠다.”

“계민 내일랑 여서 곶이¹⁰¹⁾ 글라.”

“넨랑 가커들랑 상전님 먹을 점심이랑 촛고루¹⁰²⁾ 닷뒤에 믰물고루¹⁰³⁾ 소금 닷뒤 낭 점심을 허고, 나 먹을 점심이랑 논쟁이¹⁰⁴⁾ 닷뒤에 소금이랑 노는 체 마는 체 허영 점

88) 구쟁이: 고쟁이. 일할 때 입는 얇은 웃옷.

89) 점벵이: 일할 때 입는 바지.

90) 계남입은: 누리장나무 잎은.

91) 새 비연: 새(풀) 베어서.

92) 느람지: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은 것으로 날가리 위에 덮는 물건.

93) 장항: 장독.

94) 익엇구나: 읽엇구나.

95) 곤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96) 애먹영: 애를 써서. 힘들어서.

97) 벳견: 벗겨서.

98) 피체골은: 동작이 재빠른 꼴을 나타내는 말.

99) 문딱: 전부.

100) 앓어: 가져.

101) 곶이: 같이.

102) 촛고루: 참가루.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아 순수한 메밀가루.

103) 믰물고루: 메밀가루.

104) 논쟁이: 메밀을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 가루를 쳐낸 그 나머지로 갈린 껍질과 가루가 섞인 나깨.

심을 험서. 범벅을¹⁰⁵⁾ 멘듭서.”

물은 타젠 허난,

“상전님이랑 새 물 탐서. 날랑 묵은 물을¹⁰⁶⁾ 타쿠다.”

새 물 타젠 허난 구쟁기 딱살¹⁰⁷⁾ 낀 물질메¹⁰⁸⁾ 팍허게 녹두난¹⁰⁹⁾ 와들랑탕 허난

“아이고, 상전님아. 새 물을 타젠 허민 물머리 ㅋ서가¹¹⁰⁾ 잇어야 험네다.”

“어떻헤영 출리느니?”

씨암톡 잡아놓고 잘 출려사¹¹¹⁾ 험니덴 허연. 상다리가 부러지게 출런 제반상 삼
술¹¹²⁾ 견연 귀에 강 터난 탁탁 터난,

“아이고, 이거 볍서. 그만헤연 잘 먹고렌 헤염수게.”

구쟁기 딱살 앓아 두고

“상전님이랑 묵은 물을 탐서. 날랑 새 물을 탕 ㄱ르치명¹¹³⁾ 가쿠다.”

옛날은 새각시들 새서방 물머리 ㅋ서 문저¹¹⁴⁾ 허는 법을 마련허엿우다.

가단가단 보난, 정이엇인 정수넴이 깊은 산전드레 들어가난 어떻허민 좋으리오.

정이엇인 정수넴이 저건 먹을 것만 좋아허난,

“오라 우리 정심이나 먹영 가겐.”

걸랑 기영 험센 헤연. 높은 동산에서 정심을 먹젠 허난,

“오라, 훈디 앓양¹¹⁵⁾ 먹게.”

“아이고, 것사 무신 말이파. 모른 사름이 보민 두가시(夫婦)가 앓양 먹엄젠 허고, 안
사름이¹¹⁶⁾ 보민 종광 한집이 먹엄젠 허고, 상전님 먹다 남은 건 개나 쥐나 먹고, 상
전님 먹다 남은 거 종이 먹고, 종이 먹다 남은 거 개나 쥐나뻘이 아니 먹읍네다.”

췌청비 훈직 끊어 먹으난 짬만 짬짬허난,

이거, 느 앓아당¹¹⁷⁾ 먹어불렌 허난 순작만씩¹¹⁸⁾ 빙에기만씩¹¹⁹⁾ 반찬, 출리영¹²⁰⁾ 문
딱 먹어놓고, 요 물은 먹젠 허난, 하도 짬 거 먹어노난, 그건 ㄱ다귀¹²¹⁾ 죽은 물, 요
건 먹젠 허민 그건 구렝이¹²²⁾ 죽은 물, 요건 먹젠 허민 그건 베염이 먹은 물, 아이고,

105) 범벅을: 가루에 감자나 고구마 따위를 같이 넣어 익힌 음식.

106) 묵은 물: 헌 말을. 오래된 말을.

107) 구쟁기 딱살: 소라 껍데기.

108) 물질메: 말안장.

109) 녹두난: 누르니.

110) 물머리ㅋ서: 말머리고사. 혼인잔치 따위에 신랑이 탈 말에게 지내는 고사(告祀).

111) 출려사: 차려야.

112) 삼술: 제상에 차린 음식물을 각각 조금씩 처음 걸어 모음.

113) ㄱ리치명: 가르치면서. 길들이면서.

114) 문저: 먼저.

115) 훈디 앓양: 같이 앓아서.

116) 안 사름이: 아는 사름이.

117) 앓아당: 가져다가.

118) 순작만씩: 메추라기만큼.

119) 빙에기만씩: 병아리만큼.

120) 출리영: 반찬이영.

121) ㄱ다귀: 각다귀

122) 구렝이: 구렁이.

그 물 못 먹읍네다.

“어평허민, 어떤 물을 먹느니?”

가단가단 보난 짚은¹²³⁾ 짚은 현 물, 주천강 연훼못디가 잇엇구나.

“이 물 먹읍서.”

“어평헨 먹느니?”

옷을 우알로 멘짜허게 벗읍서. 조름을¹²⁴⁾ 하늘 옥황더레 비짜허게 헤여 낱, 굽엿 할 쪽할쪽 먹읍센 허난, 쯤정빈 정이엇인 정수넴이 말대로 옷을 민짜 벗어놓고 조름을 하늘 옥황더레 비쪽허게 내여낱, 구부런 엷더전¹²⁵⁾ 할쪽할쪽 먹어가난, 그땐 입은 입 성도 낭 우터레¹²⁶⁾ 다 데껴불엇구나. 가시자왈더레 데껴부난

“요것이 문암성 문도령 궁예청 신예청 꽃놀이 허는 거우다.”

아이고, 요놈신디 속아지엇구나.

“저 옷이나 나 도라.”

“아이고, 상전님아, 상전님아. 나 말 잘 들으켄 허민 옷 안네쿠다.”

“느 말을 잘 듣젠 오랏주. 아니 듣젠 오랏이나?”

“게민 영 험서. 젓통이나, 뭉실뭉실 현 젓통이나 문직아¹²⁷⁾ 보게.”

“아이고, 나 젓통 문직는 거 보단 나 녹는 방에 강 가지깁일¹²⁸⁾ 문직아 보라. 그보다 더욱 좋아지다.”

“영 험서. 상전님아. 입이나 쪽허게 맞춰보게.”

“아이고, 나 입 맞추는 거 보단 나 녹는 방에 강 나팔을 불어보라. 그보다 더욱 좋아지다.”

“영 험서. 흘모게기나¹²⁹⁾ 혼번 문직아 보게.”

“나 흘모게기 문직는 거 보단 나 녹는 방에 강 은토시를 썬보라. 그보다 더욱 좋아지다.”

“상전님아, 영 험서. 볼끈 안앙 즘이나 자보게.”

“아이고, 나영 즘자는 거 보단, 나 녹는 방에 강 금상이불 한이불 원앙 치랑 잣베게 누워보민 그보다 더 좋아지다.”

경 정 허단 보난 해는 열락서산(連落西山) 다 지엇구나.

“아이고, 영 허나 정 허나, 이날 밤인 여기서 세엿당 가살거난¹³⁰⁾ 돌 헤당¹³¹⁾ 움막이나 짓이라.”

움막은 짓이난

날랑, 안으로 불을 솔으크메¹³²⁾ 늘랑 베끼디로¹³³⁾ 강 불빛 나오는 냥 고망을¹³⁴⁾ 막

123) 짚은: 깊은.

124) 조름을: 엉덩이를.

125) 엷더전: 엷드려서.

126) 우터레: 위에.

127) 문직아: 만져.

128) 가지깁이: 개지. 늦그릇의 뚜껑.

129) 흘모게기나: 손목이나.

130) 가살거난: 가야할거니.

131) 돌 헤당: 돌 해다가.

으렌 허난,

“결랑 기영 협서.”

서른여덟 니빠디¹³⁵⁾ 허우덩씩 웃엇구나.

정이엇인 정수넴이 베끼디 왕, 열 고냥 막으민 다섯 고냥 빵¹³⁶⁾ 지더간다.¹³⁷⁾ 다섯 고냥 막으민 세 고냥 빵 지더간다. 정이엇인 정수넴인 부수 막으멍,

“올로여.¹³⁸⁾ 요 불빛이여. 요 불빛이여.”

헤가민, 안으로, 막당 보민 베끼딜로 불빛 나오는 냥, 경 정 허단 보난, 동산새별 먼동 금동(金東) 대명천지 붉는¹³⁹⁾ 날이 뒤엇구나. 붉는 날이 뒤엇이난, 꾀죽 곶이¹⁴⁰⁾ 용심이¹⁴¹⁾ 불쑥불쑥 나가난

“정이엇인 정수넴아. 너는 왜 불쑥불쑥 용심을 내느냐? 나 동무릅더레 굽으라. 니 나¹⁴²⁾ 잡아 주마.”

늑단 꾀둥¹⁴³⁾ 견언 보난 벅모살이 흘친 듯,¹⁴⁴⁾ 웬 꾀둥¹⁴⁵⁾ 걸천 보난 흑모살이 흘친 듯 헤엇구나. 좁진 닌¹⁴⁶⁾ 놓아두고 훑은 닌¹⁴⁷⁾ 독독독독 다 죽엇구나.

덩드령곶은¹⁴⁸⁾ 흘모게기 가심더레 얼핏얼핏 들어와 가난, 아이고, 요건 행실머리가 꾀쌌허다.¹⁴⁹⁾ 자굴씨¹⁵⁰⁾ 잇이난 그거 꺾언 귀창에 꾀 박아부난 귀창 터전 오꼳 죽어 불엇구나.

귀창 터전 죽어부난, 쯤청빈 물 탄, 이 몰아 저 몰아 오라난 질로 집을 좃양¹⁵¹⁾ 걸렌 허난, 집 좃안 오난,

“어머님아, 아바님아. 종이 아깝수과? 딸이 아깝수과?”

“것사¹⁵²⁾ 무신 말이니? 종보다 딸이 더욱 아까와 지다만은 종은 경 해도 상전님 먹을 거고 이녁 먹을 거 오몽도¹⁵³⁾ 허고 한다.”

계민 딸보다 더욱 아까운 종을 강 살려오쿠덴 헤연. 쯤청빈 남저 행착 출런,

132) 솔으크메: 피우겠으니.

133) 늘랑 베끼디로: 널랑 밖으로.

134) 거망을: 구멍을.

135) 니빠디: 이빨.

136) 빵: 빼서.

137) 지더간다: 빨감으로 불에 넣는다.

138) 올로여: 요기여.

139) 붉는: 밝는.

140) 꾀죽곶이: 팔죽같이.

141) 용심이: 화가.

142) 니나: 이나.

143) 늑단 꾀둥: 오른쪽 꾀둥.

144) 벅모살이 흘친 듯: 하얀모래가 흘린 듯.

145) 웬 꾀둥: 왼쪽 꾀둥.

146) 좁진 닌: 작은 이는.

147) 훑은 닌: 큰 이는.

148) 덩드령곶은: 덩드령같은.

149) 꾀쌌허다: 꾀쌌하다.

150) 자굴씨: 자귀나무.

151) 좃양: 찾아서.

152) 것사: 그계.

153) 오몽도: 움직이기도.

삼도령이 부엉새 하나¹⁵⁴⁾ 맞천, 느 맞치고라. 나 맞치고라. 싸움발악 허염구나.

“야, 느네 무사 경 싸웁시니?”

“이 부엉새 하나 맞천 싸웁수다.”

경 말앙 그 부엉새 나신디 돈 석 냥에 풀아두고¹⁵⁵⁾ 느네, 훈 냥씩 갈랑 앓이렌¹⁵⁶⁾ 허연. 쥐 두고 부엉새 죽은 거, 마친 거 산, 서천꽃밭 꽃감관 꽃생인, 각시 말다 부엉 부엉. 서방 말다 부엉부엉. 부엉새 제완¹⁵⁷⁾ 줌을 못 자난, 이 부엉새 마치는 자. 광고 시견. 이 부엉새 마쳐 주는 사름은 단(單)뜰애기 사월 삼으켄 헤연. 광고 붙엿구나.

부엉새 마천. 꽃감관 꽃생인네 집이 서천꽃밭디, 활죽 헌 디 질런 꽃밭디 데견. 꽃 밧을¹⁵⁸⁾ 주왓거리 가난¹⁵⁹⁾ 꽃감관 꽃생인이 허는 말이,

“어떻 헌 쫘은이가 놈이 꽃밭디 기웃 거렘시니?”

허난,

“나 부엉새 마치관뉘¹⁶⁰⁾ 어디사 강¹⁶¹⁾ 죽은지 몰란 영 주왓 거렘수다.”

허난,

그 부엉새, 각시 말다 부엉부엉. 서방 말다 부엉부엉. 그 부엉새 마쳐주민 나 단뜰 애기 사위 삼으켄 허난, 보난, 부엉새 마쳤구나.

단뜰애기 사위를 삼앗구나. 가는 날 저녁 흘목이도 혼번 아니 심으난, 뒷날 아칙 은¹⁶²⁾ 일어난,

“아바님아. 어머님아. 사위 너미 도고(道高) 높은¹⁶³⁾ 사월 허엿우다. 밤인 줌자젠 허 난 흘목도 혼번 아니 심는 사위우다.”

이젠, 뒷날은 사위신디 허는 말이

“무사,¹⁶⁴⁾ 우리 뜰 므음애가¹⁶⁵⁾ 엇이나? 어떻게 일로 흘목도 혼번 안 심엄시냐?”

“이 므을애¹⁶⁶⁾ 법은 어떻게허는지, 우리 국에 법은 과걸 강, 뵤 와사 부베간이¹⁶⁷⁾ 뭉 허락을 허난 흘목이도 혼번 아니 심엿우다.”

“아이고, 양반이 집 즈식이¹⁶⁸⁾ 적실허다.”¹⁶⁹⁾

이젠 꽃밭디 구경을 시기난,¹⁷⁰⁾ 어떤 사름은 그날 밤이 시기난, 즈청비가 웃통 벗언

154) 하나: 하나.

155) 풀아두고: 팔아두고.

156) 갈랑 앓이렌: 나누어서 가지라고.

157) 제완: 때문에.

158) 꽃밧을: 꽃밭에.

159) 주왓거리 가난: 할 일 없이 이리저리 다녀가니.

160) 마쳐관뉘: 마쳤는데.

161) 어디사 강: 어디에 가서.

162) 아칙은: 아침은.

163) 도고(道高) 높은: 거만하다는 뜻임.

164) 무사: 왜?

165) 뜰 므음애가: 딸 마음애가.

166) 므을애: 마을에.

167) 부베간이: 부부간이.

168) 즈식이: 자식이.

169) 적실허다: 확실하다.

170) 시기난: 시키니.

강, 꽃밭디 누웠, 정이엇인 정수넴이 혼령이 들언 배 우이 올라오난, 부엌새 할쭈헌 대로 꽃안, 그걸로 사위 삼앗젠 허는 어른도 잇입네다.

이젠 쯤청빈 피 오를 꽃, 술¹⁷¹⁾ 오를 꽃, 오장육보 간담 피부 오를 꽃, 쯤근쯤근¹⁷²⁾ ㄱ르치난¹⁷³⁾ 탄. 하나씩 콤에¹⁷⁴⁾ 콤어 두고,

서천꽃밭디선 나 강 옴¹⁷⁵⁾ 동안 상동낭 용얼레기¹⁷⁶⁾ 반착¹⁷⁷⁾ 꺾언 본메본짱¹⁷⁸⁾ 두 어두고, 쯤청빈 이 몰아 저 몰아 정이엇인 정수넴이 죽어난 디 좃앙 걸렌 허연 가난, 정이엇인 정수넴인 빼만¹⁷⁹⁾ 슬그랑¹⁸⁰⁾ 허엿구나. 피 오를 꽃 술 오를 꽃 놓안. 삼 시 번 내훈두난 와들레기 살아났구나. 집이 오란, 어머니, 아버지. 똥보다 더 가까운 종 살려 오랏우덴 허난,

“아이고, 이 년아, 저년아. 사름을 죽이고 살리곡 허여지느냐? 너가 간쭈 나고가 라.”

내쭈까 부난,¹⁸¹⁾ 쯤청빈 비세(悲鳥)꺠이¹⁸²⁾ 울멍 나오란 주천강 연훼뭇디 잇이난, 이거 주모할망 수양똥 돌앗구나.

수양똥 나난, 어멍 눈에 시찌나고¹⁸³⁾, 아방 눈에 꺠리난 나왓우덴 허난, 수양똥을 삼으라. 수양똥을 삼으난,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서수왕에 장게 가젠 허난, 우리 집이 흥세미녕¹⁸⁴⁾ 멧겼구나.¹⁸⁵⁾ 흥세미녕이나 짜렌 허난, 왓각절각 광주청 눈물 주용아방 연주지똥 비세꺠이 울어간다.

눈물은 털어지어 가난, 금바독도 ㄷ릴¹⁸⁶⁾ 놓앗구나. 옥바독도 ㄷ릴 놓앗구나. 공작 새(孔雀鳥)도 그려 지엿구나. 화기 새(花器 鳥)도 눈물자국으로 그려지엿구나.

그거 멧지비단 짜 놓안 올라난, 이거 누게 짜시넴? 허난, 우리 집 수양똥 애기가 찻젠 허난,

“그 수양똥 누게니?”

허난, 쯤청비엔 허난, 그 말 들엇단 하늘옥황 문암성 문도령 밤잡아¹⁸⁷⁾ 야사삼경(夜事三逕) 현, 현덜¹⁸⁸⁾ 밤이 나가 내려가켄 전갈을 허난, 꺠죽 할망¹⁸⁹⁾ 꺠죽 써 놓아 두

171) 술: 살.

172) 쯤근쯤근: 자근자근.

173) ㄱ르치난: 가르치니.

174) 콤에: 품에.

175) 옴: 오는.

176) 상동낭 용얼레기: 상동나무 머리뺏.

177) 반착: 반쪽.

178) 본메본짱: 증거물이 될 사물.

179) 빼만: 빼만.

180) 슬그랑: 쌓여있다.

181) 내쭈까 부난: 내쭈아 버리니.

182) 꺠이: 같이.

183) 시찌나고: 거슬리고.

184) 흥세미녕: 혼인잔치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가져가는 폐백인 무명.

185) 멧겼구나: 말겼구나.

186) ㄷ릴: 다리를.

187) 밤잡아: 밤에.

고 문왕성 문도령 나오란

“이 문 올라.¹⁹⁰⁾ 이 문 올라.”

허난,

나가 하늘옥황 문어양성 문도령이노렌 허난, 문왕성 문도령이결랑 손가락을 내와 도렌 허난, 손가락을 내와 두난, 바농으로,¹⁹¹⁾ 침을 꼭허게 손가락을 찢러부난, 인간은 서정허고 부정(不正)허다. 하늘옥황 도올라 불엇구나. 하늘옥황 도올르난, 쯔청빈 뒷날 아직은 주모 할망 꾀죽 썬 놓고 사위 오민 주젠¹⁹²⁾ 보난,

“언치낙¹⁹³⁾ 누게 아니 와서니?”

허난, 아이고, 이만 저만 헛우덴 허난, 난, 사위오민 문왕성 문도령 사위 삼젠 허단 보난,

“야, 경 허난 어멍 눈엔 골리나고 아방 눈엔 시찌나트구나. 나 눈에도 시찌나난 너가 강 중 나고가라.”

쯔청빈 이젠 어멍 눈에도 시찌나고 아방 눈에도 골리 나고, 수양어멍도 골리나고 시찌난, 어디 가코.

머리 깍안 중으로 들어가젠 헤연. 절간 법당 들어가난, 절간엔 들어 가난, 인간에 노력강¹⁹⁴⁾ 시권제삼문(勸濟三文)을 반양 오라. 시권제삼문을 반안 절간 법당더레 올라 가젠 허난, 발도 버물고¹⁹⁵⁾ 허난, 주천강 연훼못디서 발이나 싯젠 한탄을 허염시난, 하늘옥황에 궁예청 신예청 옥황에서 문왕성 문도랑 애열병이¹⁹⁶⁾ 난 인간에서 쯔청비 먹어난 물이라도 강 떠오렌 허난, 어느 것사¹⁹⁷⁾ 쯔청비 먹어난 물인지 몰란, 비세굴이 울염시난, 나가 그 물을 떠 주크메¹⁹⁸⁾ 날 하늘옥황더레 올려 줄티엔? 허난, 올려 주켤.

물을 삼세번 거러 먹언 물을 떠 주엇구나. 물을 떠 주난, 하늘옥황더레 올려주엇구나.

하늘옥황더레 올려주난, 쯔청빈 시권제삼문 받으레 문왕성 문도령네 집이 들어갓구나. 시권제삼문을 주난,

“높이 들렁 알려레¹⁹⁹⁾ 시르륵 시르륵 비웁서. 훈방울이²⁰⁰⁾ 떨어지민 멩(命)도 복(福)도 떨어집네다.”

높이 들렁 알려레 시르륵 시르륵 비우난, 훈착 귀아진²⁰¹⁾ 내부난²⁰²⁾ 알더레 털어지

188) 훈달: 한달.

189) 꾀죽할망: 팔죽할망.

190) 올라: 열라.

191) 바농으로: 바늘로.

192) 오민 주젠: 오면 주려고.

193) 언치낙: 어젯밤.

194) 노력강: 내려가서.

195) 버물고: 더럽고.

196) 애열병이: 가슴병이. 상사병이.

197) 어느 것사: 어느 것이.

198) 떠 주크메: 떠 줄 테니.

199) 알려레: 아래로.

200) 훈방울이: 한방울이.

엿구나. 좁음으로²⁰³) 방울방울 올리단 보난, 해는 열락서산 다 지엿구나.

밤인 뉘난 유저남이²⁰⁴) 잇엇구나. 팽저남이²⁰⁵) 잇엇구나. 유저남, 팽저남 우이²⁰⁶) 올라간.

“저 들(月)은 곱기는 곱다만은 계수나무 박혔구나.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만이 못 고와지다.”

무남성 문도령은 마당에 나오란.

“저 들은 곱기는 곱다만은 계수나무 박혔구나. 지하에 쯤청비만이 못내 고와지다.”

맞음짜이 뉘연 놀레가²⁰⁷) 뉘엇구나. 그림자를 바려보난 낭²⁰⁸) 우이 사름이 잇엇구나.

“너가 구신이나? 쟁인이나?”

구신이건 옥황도레 도올르고 쟁인이건 내려오렌 허난, 내려온 건 보난, 쯤청비랏구나. 머리 깎안 삭발 뉘엇구나.

“이거 어평헌 일이니?”

허난, 문왕성 문도령 생각허단 보난, 이 지경이 뉘우덴 허난, 방안내 들양²⁰⁹) 들어갓구나. 문왕성 문도령도 쯤청비 생각 허단보난, 먹는 밥이 이젠 다 맛이 엿언, 뒷날 부편, 아척부편²¹⁰) 세숫물도 굿영²¹¹) 나오고, 밥도 혼사발 다 비영 나오곡, 영 허단 보난, 늦인덱이 정하님 필아곡절(必有曲折) 허다. 이상허다. 물도 굿영 나오고 세숫물도 굿영 나오곡, 밥도 혼사발 다 비왕 나오곡, 이거 어평헌 일이니? 허연. 손가락에 춤 적전²¹²) 창 궁길²¹³) 뜰환²¹⁴) 보난, 곱닥헌 애기씨광 밥도 느도 혼직²¹⁵) 나도 혼직, 세수도 느도 혼번 나도 혼번.

아이고, 이거 큰일났구나. 상전님 알아나민 나 청뎃섭에 목을 졸라 죽을 지경이 뉘엇구나. 상전님신디 강 널 아척이랑 곤젠²¹⁶) 허난, 쯤청비가 허는 말이,

“문왕성 문도령님아, 아침이 강 아버지 어머니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레 가걸랑, 목은 것이 좋덴 허걸랑 나신디 장게 오고, 새것이 좋덴 허건 서수왕에 장게 갑서.”

문왕성 문도령님이,

“아바지 어머니. 목은 옷이 좁네까? 새 옷이 좁네까?”

201) 혼착 귀아진: 한쪽 모서리는.

202) 내부난: 내버리니.

203) 좁음으로: 짓가락으로.

204) 유저남이: 유자나무가.

205) 팽저남이: 팽나무가.

206) 우이: 위에.

207) 놀레가: 노래가.

208) 낭: 나무.

209) 들양: 데리고.

210) 아척부편: 아침부터.

211) 굿영: 더러워져서.

212) 춤 적전: 침 적셔서.

213) 창 궁길: 창 고망을.

214) 뜰환: 풀어.

215) 혼직: 한적.

216) 곤젠: 말하려고.

“새 옷은 어디 가젠 허민, 말쑥하게 입영 가젠 허민 새 옷이 좋다만은 방장부장 입젠 허민 묵은 옷이 좋아지다.”

“게건 새 장이 뚝네까?²¹⁷⁾ 묵은 장이 뚝네까?”

“새 장은 처음 먹을 때 좋주만은 짙은 맛은 묵은 장이 좋아지다.”

“어머니 아버지, 게건 사름은 새 사름이 좋읍네까? 묵은 사름이 좋읍네까?”

“새 사름은 처음 볼 때 곱다만은, 먼저 잇인²¹⁸⁾ 사름은 짙은 정 늦은 정 속 얘기 알긴 묵은 사름이 좋다.”

“게민 나 서수왕에 장게 아니 가쿠다.”

아이고, 이거 어떻 험 일인고 펡풍을²¹⁹⁾ 걷언 보난, 곱닥헌 애기씨가 잇엇구나.

“너 나 며느리 뉘켄덜랑 숯 아홉 가멩이²²⁰⁾ 비와 난,²²¹⁾ 구덩이²²²⁾ 아홉 파 난, 숯 아홉 가멩이 비아 낱 칼선드리²²³⁾ 낱, 불 피완, 칼선드릴 낱 발아갔다.²²⁴⁾ 발아왔다 허민 나 며느리가 적실허다.”

허난,

“결랑 기영 협서.”

허연. 구덩이 아홉 파 놓고 숯 아홉 가멩이 비와 놓고, 불을 벌건케²²⁵⁾ 피와 난, 칼선드리 낱 발아갔다. 발아왔다 허연 슬짝허게²²⁶⁾ 내리난 뒤꿈치가 비어지엇구나.

“아이고, 어떻허난 놀랑내가 남시니? 놀핏내가²²⁷⁾ 남시니?”

“여자엔 험 건, 열다섯 십오세가 넘으면 맨스 오는 법, 몸에 거 오는 법, 경도법(經度法) 마련협네다.”

경도법을 마련헤여 두고, 느네 부베간이 살아보렌 헤연. 살젠 허난, 서수왕에서, 서수왕 뜰애기 막편지 좃으레²²⁸⁾ 가난, 서수왕님이 부아가 데짜지언²²⁹⁾ 문왕성 문도령을 죽이기로 작정을 허엿구나.

죽이기로 작정은, 어떻 험 작정이냐 허면 세변난리(世變亂離)를 강 막앙 오렌. 세변난리를 강 막아오렌 허난, 삼천선비덜 술 혼잔씩 권허민 고암약주²³⁰⁾ 한약주 열약주가 뉘연. 독약을 낱 혼잔씩 다 먹영 보내렌 허난, 문왕성 문도령 문²³¹⁾ 청헤연. 삼천선비덜이

“나 술도 혼잔 먹영 가라. 나 술도 혼잔 먹영 가라.”

217) 뚝네까: 답니까.

218) 먼저 잇이: 먼저 있는.

219) 펡풍을: 펡풍을.

220) 가멩이: 가마니.

221) 비와 난: 비워 놓고.

222) 구덩이: 구덩이.

223) 칼선드리: 여기서는 칼날이 위로 서게 걸쳐놓은 것을 뜻함.

224) 발아갔다: 밟아서 갔다.

225) 벌건케: 벌겋게.

226) 슬짝허게: 살짝.

227) 놀핏내가: 피 냄새가.

228) 좃으레: 찾으러.

229) 부아가 데짜지언: 화가 많이 난 상태.

230) 고암약주: 구암약주. 아홉 번씩이나 고아낸 술.

870) 문: 모두.

영 혈 때 즈청비가 허는 말이, 멩지바지²³²⁾ 솜저구리²³³⁾ 입영 강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호곰도²³⁴⁾ 먹지 말앙 가심더레 문짜²³⁵⁾ 비웁센 허난, 곁랑 기영 허렌 허연.

흔 잔씩 흔 잔씩 문딱 권허난, 먹는 듯 먹는 듯 허멍 요 솜, 바지 저고리더레 문 비우난, 문 흡수가 뉘엇구나.

흔잔도 아니 먹언 오단 보난, 주목잡이 주모할망 나 술이라도 흔잔 먹영 가렌. 나 술도 흔잔 권허난, 요 할망 주는 술은 어뎡 아니허카부덴 허난, 그 술이 도얌약주 한 약주 열약주가 뉘엇구나.

그거 먹으난, 문왕성 문도령 물 탄 오란, 저 올레 오란, 물 알더레 털어지엇구나. 물은 콧소리를 허난, 즈청빈 나오란 보난, 별써 문왕성 문도령은 죽엇구나. 방 안내 업어다 낯 녹지난,²³⁶⁾ 삼천선비덜 죽엇인가? 살앗인가? 왕 보젠 왓구나. 벌 밑축, 콧소리 허는 밑축 잡아단 와다닥 와다닥 헤여가난, 아이고, 콧소리 헤염구나.

무췌 방석 내여준다. 무췌 즈베기²³⁷⁾ 내여준다. 삼천선비덜 무췌 방석에 무췌 즈베기 하나도 못 먹언. 즈청빈 믈 즈베기²³⁸⁾ 헤연 바득바득 씹어 먹어가난, 아이고, 저 건 사름이 아니랑 구신인가? 어뎡헨가? 겁난 짐에 들앗구나²³⁹⁾.

둔단 보난,²⁴⁰⁾ 세변난리 서방 대신 막으레 가젠 허난, 이 강에서 저 강더레 가살거난,²⁴¹⁾ 강둑에 앓안 비세굴이 울엄시난 백강생인²⁴²⁾ 죽언 바당더레 띠와부난 거북이 몸으로 환싱 허엿젠 험디다.

거북 몸으로 환싱 허난, 세변나리 막으레 갈 때 돌앙 가고, 돌앙 오고 헤연.

오라근에 부베간이 살아보젠 헤연. 즈청빈, 정이엇인 정수님이 살려난 꽃으로 남인 가장 문왕성 문도령 살렸구나.

살련, 부베간이 살암시난, 어느 건 여자가 아니라. 꽃감관 꽃생인 툐애기신디 기다리렌 헤연. 이거 상동낭 용얼레기 주멍 허는 말이, 이만 저만 헨 일이 잇언, 정이엇인 정수님이 죽언 살려올 땐, 서천꽃밭 꽃감관 꽃생인신디 들어간 때, 꽃감관 꽃생인 툐 부베간을 삼안 상동낭 용얼레기 반착 꺾언 남녀 구별법은 과걸 뵙²⁴³⁾ 와사헌덴²⁴⁴⁾ 헤연. 이거 본메본짱 이난 그디랑²⁴⁵⁾ 선보름, 나상²⁴⁶⁾ 후보름, 그디랑 선보름 허멍, 오멍가멍 흔 덜에 보름씩 살림 살겐 허난, 계곁랑 기영 허렌 허연.

문왕성 문도령 꽃감관 꽃생인신디, 툐애기신디 보낸 놔두난 그디 강 살단 보민

232) 멩지바지: 멩지바지.

233) 솜저구리: 솜저고리.

234) 호곰도: 조금도.

235) 문짜: 다.

236) 녹지난: 눅히니.

237) 무췌 즈베기: 무췌 수제비.

238) 믈 즈베기: 메밀 수제비.

239) 들앗구나: 달아났구나.

240) 둔단 보난: 달리다 보니.

241) 가살거난: 가얏거니.

242) 백강생인: 하얀 강아지는.

243) 뵙: 봐서.

244) 와사헌덴: 와야 한다고.

245) 그디랑: 그곳에서는.

246) 나상: 나한테는.

즈청비신디 올 땐 몰안장도 거꾸로 씨영²⁴⁷⁾ 오고 신도 거꾸로 신영 와가난, 나신디 오기가 정 실평²⁴⁸⁾ 저추룩²⁴⁹⁾ 험구나 헤연.

흐를날은²⁵⁰⁾ 인간더레 도노리젠 허난, 세번도원수 막을 때

“나라를 차지하겠느냐?²⁵¹⁾ 세경땅을 차지하겠느냐?”

영 허난, 여자라부난 세경땅을 차지허영 오곡농서 지영 먹켄 허영. 인간더레 내려완 보난, 오곡 농선 다 지어불고 늦을 농서 믰물²⁵²⁾ 농서 남앗구나.

다시 하늘 옥황 도올란, 믰물 농선 좃쟁이에²⁵³⁾ 콤언 내려올 땐 문왕성 문도령도 나도 혼디 가켄.

문왕성 문도령도 곶이 내려오단 보난, 나문 비연,²⁵⁴⁾ 툫밥이 잇엇구나. 툫밥에 믰물 씨 석언 피난²⁵⁵⁾ 늦인 농선 믰물농서가 뉘고,²⁵⁶⁾ 정이엇인 정수넴이.

“상전님아, 어디 간 옹데가?”

아이고, 베고프고 시장허난, 밥이나 어디 강 얻어 줍센 헤연. 밥이나 얻어줍센 허난,

젊은 청년덜 바령밭디²⁵⁷⁾ 니²⁵⁸⁾ 귀에 몰모쉬 거느런 밧 불럼시난²⁵⁹⁾, 밧 호꿈 주렌 허난, 저 젊은이들 줄 거랑 마랑. 우리 먹을 거도 엇젠 허난, 그 밧딘,²⁶⁰⁾ 씨 판씩허게²⁶¹⁾ 거두와 볍디다.

가단 보난, 할망 하르방이 쉼스렁 농서 허염구나.

“할마님아, 하르바님아, 우리 베고프고 시장허난 밥이나 호꿈 줍센.”

허난,

“동고랑착에²⁶²⁾ 밧을 헤영 와신디 우리도 먹어 보지 안허여시난 반이랑 먹영 가고, 반이랑 놔뉘 가렌.”

허난,

“걸랑 기영 험센.”

허영. 동고랑착에 강 판씩허게 먹어두고, 그 밧딘 무췌열음²⁶³⁾ 췌열음 막게만씩 덩 드렁만씩, 옛날 조코구린 췌스렁 농선 잘 뉘덴 험네다.

247) 씨영: 씌어서.

248) 정 실평: 저렇게 싫어서.

249) 저추룩: 저렇게.

250) 흐를날은: 하룻날은.

251) 차지하겠느냐: 차지하겠느냐.

252) 믰물: 메밀.

253) 좃쟁이에: 겨드랑이에.

254) 나문 비연: 나무는 베어서.

255) 석언 피난: 섞어서 뿌리니.

256) 믰물농서가 뉘고: 메밀농사가 되고.

257) 바령밭디: 소나 말 따위가 드나들면서 짓밟혀진 밧을 가리키는 말.

258) 니: 네.

259) 불럼시난: 밧을 밟고 있으니.

260) 밧딘: 밧에는.

261) 판씩허게: 아무것도 없게.

262) 동고랑착에: 자그마한 대(竹)그릇에.

263) 무췌열음: 무쇠 열매.

밭 불릴땐²⁶⁴) 배 고프른 사름 엇이 밥을 배불리 줘사 그 밧디 농서가 니 귀가 키짱허
게²⁶⁵) 씨가 들어사는 법지법 마련허엿습네다.

상세경은 즈청비 중세경은 문도령 하세경은 정이엇인 정수냄이 동경(東) 가린석²⁶⁶)
서경(西) 부림패²⁶⁷) 농잠대²⁶⁸) 밧갈라침²⁶⁹) 정칠월 백중대제일(百中大祭日) 불리 주
고, 시만곡석(新萬穀食) 잘뉘게 허고, 사람 먹은이 덕도 세경이 덕, 죽어 움트감장 허
기도 세경이 덕, 우리 살앙 걸어 덩기기, 짐자기 세경이 덕 아납네까. 세경 난수생 본
을 풀엇우다. 본산국 과광성 신평엇우다. 집안에 올금년 이천 십팔년 무술년 백록 팔
월 스무요드렛날 이 굿당에서 이천당 이불공 이적선 발원 드리는데, 천덕이나 만덕이
나 오고가는 즈순 소원성취 장원성취 시겨줍서.

264) 밧 불릴땐: 밧 불을 때는.

265) 키짱허게: 반듯하게.

266) 가린석: 밧갈 때 소의 멍에에 한 끝을 묶고 한 끝을 받가는 사람의 손에 쥐어 소의 방향을 조종하
고 모는 밧줄.

267) 부림패: 가린석과 같음.

268) 농잠대: 쟁기를 일컫는 말.

269) 밧갈라침: 반 가르기.